

연중 제14주일

기도서 P. 387 C해

제1독서(이 사 66, 10-14)
제2독서(갈 라 6, 14-18)
복 음(루 까 10, 1-19)

순정이

발행인 김한철
인쇄인 김봉희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강론



아모스

왕수해 신부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하느님 나라가 다가 왔다고 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심정은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데 나같은 찌뜨만 사람이 간담이가 얼마나 크다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산 박신부님처럼 난자질 당할까 오금이 떨려 입을 못벌리겠습니다. 그때신 선지자 아모스의 말씀이나 실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선지자 아모스 말씀입니다.

① "다마스커스가 지은 죄, 그 쌓이고 쌓인 죄 때문에 나는 다마스커스를 벌하고야 말리라. 쇠꼬챙이 박힌 타작기를 돌리며 길르앗 주민을 짓바순 죄 때문이다. 하자엘의 대궐에 불을 질러 벤하앗의 궁궐들을 살라 버리리라." (1장 3-4)

② "에돔이 지은 죄, 그 쌓이고 쌓인 죄 때문에 나는 에돔을 벌하고야 말리라. 동기간의 정을 끊고 칼로 겨누며 달려들었다. 사못 증오심에 불타 올라 끝내 앙심을 풀지 않은 죄 때문이다. 헤반에 불을 지르고 보스라의 궁궐들을 살라 버리리라." (1장 11-12)

③ "암몬이 지은 죄, 그 쌓이고 쌓인 죄 때문에 나는 암몬을 벌하고야 말리라. 길르앗에서 임신한 여인의 배까지 가르며 영토를 넓힌 죄 때문이다. 라바성에 불을 질러 그 궁궐들을 살라 버리리라" (1장 13-14)

④ "아시리아의 궁궐에 말을 전하여라. 에집트의 궁궐에 말을 전하여라. 모두들 사마리아 언덕에 올라와 보게, 그 안엔 억울한 일들 뿐, 운동 뒤죽박죽일세 바른일 하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야훼의 말씀이다. 궁궐에는 권력으로 남을 등쳐먹는 자들 뿐이다. 그러므로 나 야훼가 선언한다. 적이 사방에서 이 땅에 몰아쳐 와 축성들을 허물고 궁궐들을 약탈하리라." (3장 9-11절)

⑤ "저주 받아라! 너희, 공평을 뒤엎어 소떼같이 크게 만들고 정의를 땅에 떨어뜨리는 자들아, 성문 앞에서 시비를 올바르게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바른 말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자들아, 너희가 힘없는 자를 마구 짓밟으며 그들이 지은 곡식을 거둬 가는구나... 너희가 나를 거슬러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는지 나는 전부다 알고 있다...너무도 세상이 악해져서 뜻있는 사람이 입을 다무는 시대가 되었구나" (5장 7-13절)

⑥ "그 날이 오면 아무리 용감한 장사라도 맨몸으로 도망치리라 야훼의 말씀이다" (2장 16절)

⑦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라" (5장 24절)
<임실천주교회 주임신부>



폭행과 취재 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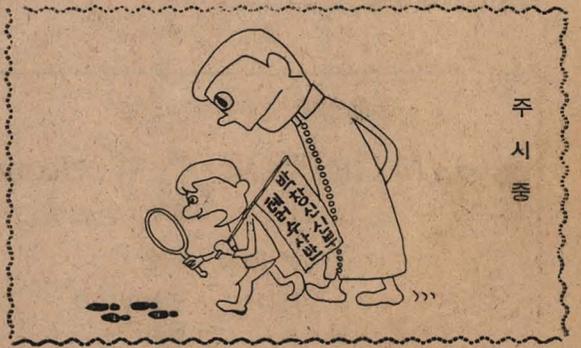
폭력(暴力)은 근절(根絶)되어야 한다. 폭력이란 무법(無法)한 완력(腕力)= (주먹질. 육체적으로 누르는 힘)이기 때문이다. 폭력이란(어떤 권력 집단이나 반대파 등을 타도하거나 분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정치상·군사상의 강제적인 힘이기 때문이다.

폭력은 여러 모습을 지니고 있다. 가진자가 더 가지려고, 부당한 방법으로 착취하거나 폭리를 남기는 일 때문에, 가난으로 찌든 가슴에 더욱 힘이 들게 하고 일치(소위 국민총화)를 깨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정치적 소양도 없는 자들이, 민주주의의 정도를 무시하여 갖가지 악랄하고 비정한 술수로, 상대방의 숨통을 조이기도 한다. -고려 말기의 무신정권들의 모습은 역사의 교훈이기도 하다. 또한, 쟁패들의 무지막지한 손찌검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쟁패들은 있는 자들의 앞잡이가 되어 몇푼의 돈때문에 꼭두각시 짓을 해낸다.

경관의 폭행에 항의하여 사진취재를 거부한 프랑스 기자들의 시위에 관한 사진은 곁들인 보도가 있었다. 내용인즉 "최근 파리에서 카메라맨 2명이 경찰관에게 폭행당한 사진을 항의하는 사진기자들이 각의(關議)를 마치고 나오는 각료들의 사진취재를 거부, 카메라를 땅에 내려놓고 팔짱을 낀 채 증오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왜 그랬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장관들 앞에서 무언하게도(?) 팔짱을 낀 채 시위하는 그들의 정신과 자세가 놀랍다.

폭력에는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당한 자들의 한숨이 그것이다. 한숨은 '무언의 시위로 발전하기도 한다. 평화적인 가두시위로도 탈바꿈을 한다. 거기에 지나친 저지가 수반되면 폭력시위로 바뀌게 된다. 힘과 힘의 맞섬은 불행이다. 그러기에 원초적인 폭력이 없어야 한다.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다.」(마태오 26, 52)

순정이 산책



주시종

여산사태 규명과 우리의 자세

박창신 신부 피습사건

김 봉 희 신부

바로 2년전, 권력의 도구화된 비인간 무리들의 발걸음 한 분 신부님이 골병든 어치구니 없는 사건을 아직도 우리는 잊지 못하고 있다. 교회사에 처참하게 새겨졌던 한 장 소위 「78년 7·6사태」가 그것이다.

그런데 전국민적 여망인 「민주발전」을 숨죽여 지켜보는 긴장된 순간, 오늘에 그 공약을 무색케 한 「성직자 폭행, 난자사건」이 또다시 전북 여산성당에서 일어났다. 도대체 민주 대헌에 또 이 무슨 참변이요 괴이한 작태란 말인가?

자고로 크리스찬 탄압은 폭군의 소행이요 성직자 핍박 살상은 바로 공산당의 소치로 낙인 찍혀 왔음을 우리는 역사에서 익히 보아왔다. 그것도 멀잖은 30년전 6·25동란을 맞은 이 땅에서 지금도 저리도록 당해 본 바다. 현대 어인 일인가? 금 80년 6·25의 밤, 여산에 다시 그 공비가 출현했는가, 배남 잔뼈가 침투했었던 말인가? 심짖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물론 믿음직한 군경의 합동수사가 진행중이요, 인상착의가 비슷한 청년들을 같은 시간 여산에 실어다 주었다는 <택시>까지 밝혀졌다니 곧 피한들이 검거되고 모두가 안도할 수 있는 성실한 사건 진상이 밝혀지리라 기대해 본다. 그들이 빨갱이든, 피한이든 아니면 꼴빈 줄거나 가엾이 미친 젊은이들이든.....어쨌든 유감지사.

그러나 우리들 결코 그들만을 탓하진 않을 것이다. 어쩌던 순간 애꿎이게 본성과 이성을 잃었었을 수도 있을테니까. 다만 오늘의 불상사를 빚게 한 원인, 그 근본 배후 저의가 한스럽고 깊이 우려될 뿐이다. 더욱 그들이 순순히 자각, 사죄하고 개심치 않는 한—

아무튼 그간 본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전문 기관원들의 수고에 사의를 표하면서, 본 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와 진상 규명도 아울러 불완전 발표할 예정이지만, 모쪼록 사건이 더 이상 엉뚱한 방향이나 미궁으로 빠져들지 않고 속히 사태 해결이 관용 속에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이의 적극적인 협력과 인내로운 해량 있으시기를 빌어마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가당치도 않지만 행여 작년 「농민회 오원춘 사건」과 같은 무모한 연극이 되풀이 돼, 신의의 희생자와 또 애매한 인권유린이 추호라도 다시 있어서 안되겠다는 점을 차제에 교회 이름으로 엄히 못박아 두고자 하는 바이다.

(교구 정명 위원회 회장)



신부, 수녀

성서 신학세미나 개최

작년에 지니했던 성서 신학 연수에 이어 금년에도 교구 행사계획에 따라 우리 교계의 저명한 두 분 성서학자를 모시고 아래와 같이 제 3회 「성서 연구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현대에 더욱 절감하게 된 우리 자신들의 영성 결핍과 복음 전달자로서의 깊은 자아 반성을 위주로 성서적인 측면에서 폭넓게 연구하며 묵상할 수 있도록 강사 신부님들과 함께 관심을 쏟아 보았습니다.

모처럼 다시 귀히 마련하게 된 이 모임에 교구내 전 성직, 수도자들의 빠짐없는 참석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러한 연구와 묵상의 모임은 본 교구 사제뿐 아니라 우리 한국 모든 사제들의 관심사요, 우리의 내적인 쇄신과 함께 전 사제단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좋은 기회도 되리라 생각되어, 차제에 뜻을 같이 하는 전국 모든 사제들의 참여도 있으시길 희망합니다.

모쪼록 모두 복음에 부응하는 오늘의 사제로 임해주시길 빕니다.

아 래

제 3회 신부, 수녀 성서 신학 세미나

일 시 : 1980년 7월 7일 오후 2시~9일 오후 5시

(2박 3일)

장 소 : 전주 가톨릭 센터(전화 ㉠ 3498, ㉠ 5098)

주 제 : 성서와 크리스찬 영성

강 사 : 박 상래 신부(가톨릭대학 성서 신학교수)

서 인석 신부(서강대 신학연구소 성서 신학교수)

참가비 : 1인당 5,000원(식비)

※ 기타 경비 교구에서 보조

대 상 : 전주 교구 신부, 수녀 및 전국 사제

교구장 김 제 덕 주교

三星物産 전주 특약점



McGREGOR Weekend

맥그리거 위크엔드

성인·아동용 의류

전주시 중앙동 3기 96-2 삼화약국 옆
전화 ㉠ 4451 유우리안나

- 생화·각종 화분·신부부케 전문·제대장식
유명장사 직접지도 꽃꽂이 피원모집
- ◇ 교우 여러분께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진 선 미 꽃 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 0921

범 띠도(역배) 이 마리야

□ 교회 소식

교구 정의 평화 위원회 총회 결의

지난 6월 28일 교구 정평위는 교구청에서 총회를 갖고 광주사태 및 시국 전반에 대한 검토와 난국 타개방안을 모색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교회가 취해야 할 자세를 신중히 논의하고 우선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1. 주교단과 추기경님의 시국 담화문의 뜻을 주지, 계몽시켜 공산화의 위기에서 민주국가 수호를 위한 신념을 확고히 다지도록 전력 투신한다.
2. 교구단위 단체 지도자 및 지역별, 그룹별 모임을 통해 명확한 시국관과 신앙확신을 다질 연구 목상회를 계속 개최한다.
3. 여산사태 조사 규명과 그에 따른 결연한 행동 결속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4. 정평위원회 보강 위촉: 김병영, 김병운, 김영신 신부님을 새 위원으로 천거하고 주교님의 계가를 구한다. (당일자로 위촉하셨음)

전교 수녀 연합회 개최

광주사태와 여산 박신부 피습사건 등 시국 공동대처 방안과 수녀님들의 결속을 위해 6월 30일에는 성체회 본원에서 교구내 각 지역대표 수녀님들이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몇가지 결의와 함께 바로 「9일기도」에 들어갔다.

가톨릭 농민회 전북 이사회도 열려

7월 2일 교구 농민회 대표들은 지도신부(박창신) 피습사건과 관련 공동보조를 취하고 교회 지침을 실현키 위해 긴급 모임을 갖고 앞으로의 대책을 숙의했다.

정평 활동 후원을 위한 성금 모금

이 땅의 사회 정의 구현과 시국에 대처한 정평위 활동의 원활을 위해 뜻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값진 성금을 구합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각 분당 신부님이나 교구 정평위 또는 사무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지난해의 뜨거운 협력에 감사 감사드립니다.
- 박창신 신부님의 치료, 건강 회복을 위해 지원이 필요합니다. 박신부님은 많은 자상(刺傷)과 타박상 그리고 늑골 2개가 부러져 상당기간 입원가료를 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병원 223호에 입원중)

요심이 (361) 김병오



사진재료 및 기계
칼라필름 도산매

유 광 사

주 유 가에따노(영문)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은행 후문 앞)
전화 ㉠ 4448 · ㉡ 2176

※ 전주역 앞

범모약국

전화 3-5319

김영춘(아오스당)

건축용페인트, 기와용락카, 카-슈질, 호마이카, 락카, 접착제, 청단안료, 왁스, 글분, 은분, 가구제료
도장공사 청부(상담)

현대 페인트사

청차표 현대페인트(주)
전주 직매점
주요영원(바오로)·김영환(아오스당)
전동 2가69(성모병원앞) ㉠2377번

◆ 오리포 생크 · 까스기구 일체

동남 종합 싱크주방

동남 의료 과학 상사
김낙균(요셉)
전화 3-6900
전주시 서노중동 639-40
(중앙성당 정문옆)

*교우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시보당 금방

(금·은·보석·각국 시계)
주이창수(바오로)
전주 남문 옆
전화 ㉠ 8188 (자 ㉡0369)

◎ 건강 관리 센터 ◎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시대버스 승차장)
전주 옥교옆 중앙시장동
(전화 ㉠ 4577, 5789)

표구, 서화, 병풍, 수예, 빗석, 보료

문화양행

오종원(아오스당)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3170
☆교우님들 자주 들리세요



1. 신부·수녀 성서 신학세미나 개최...7월 7일 오후 2시~9일 오후 5시, 가톨릭 센터에서 주제-성서와 크리스찬 영성, 강사-박상래 신부(가톨릭대학 성서 신학교수), 서인석 신부(서강대 성서 신학교수), 대상-전주교구 신부·수녀 및 전국 사제, 참가비-1인당 5,000원
2. 남자 켄 전체 모임...7월 6일(일) 오후 2시, 중앙성당
3. 여자 켄 전체 모임...7월 6일(일) 오후 2시, 중앙성당
- 문학강좌 안내...7월 19일<토> 오후 7시 30분, 가톨릭 센터에서 강사-문덕수(국민대 교수), 제목-한국 문학의 나아갈 길
- 박성운(베네딕도) 신부님 영명축일(7월 11일) 축하연 없습니다

(중앙)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문정현
3874 보좌 신부 박성필
사도 회장 김병구

1. 축! 영세 : 5일<토> 저녁미사-144명
2. 사도회 월례회 : 공식미사 후 강당 임원, 구역장, 반장, 신심단체장 꼭 참석바랍니다
3. 프란치스코 3회 : 오후 2시 강당
4. 상지회 : 10일<목> 오후 7시로 연기
5. 특별강의 : 예수는 우리의 희망 (신약에서 본 교회사의 한 단면) 7월 9일<수> 오후 8시-성당
예수의 최후 만찬과 교회의 만찬회 7월 16일<수> 오후 8시-성당
6. 인성회 : 7일<월> 오후 7시 30분
7. 7월 5일 영세자 가정방문 실시 15·16·17일-오전 10시
8. 예비자교리 시작 : 8월 9일부터
9. 청년합창단 정기총회 : 13일 저녁미사 후 강당 교문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10. 대학생회 : 매주 목요일 오후 6시-전원 참석 바람
11. 주일학교 : 어린이들 토요일 오후 3시에 교리와 미사에 꼭 줌 보내주세요
12. 중학생회 임시총회 : 7월 13일<일> 오후 2시
13. 감사헌금 : 김한결 (5,000원)
- 지난주 봉헌금 : 408,397원

2. 미사시간 엄수 : 미사시간 늦지 않도록 개별히 주의 바람(성경책 꼭 지참)
3. 봉헌금 미수없도록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비자 교리 :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후-범신부 지도 매주일 공식미사 후-히데레사씨 지도
5. 숲정이성당 신축기금 신입하신 분을 속히 납부 바람
6. 신협에 아직도 가입을 안하신 분은 속히 가입하여 혜택받으시다
7. 8일(화) 오전 5시 30분 미사 (성서연수회 관계로)
8. 축! 혼인 : 김정례(안나)씨 장남 귀상(스메타노)군 정성로씨 3녀 수준양
오늘 12시-부자성당에서
- 지난주 봉헌금 : 226,415원 교황주일헌금 : 25,77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사도회 월례회 : 공식미사 후 회의실
2. 유아세례 : 매월 첫째주일 공식미사 전
3. 성심회 월례회 : 10일(목요일) 오후 2시 사제관
4. 성당 내부용 선풍기 기증
최병화(1대), 이용완(1대), 무명(2대), 박순성(1대) 한랄라라(1대) 계 : 16대
5. 할머니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6. 학생 예비자 교리 : 매주 <토> 학생미사후(오후 7시)
7. 다음주 전례담당 : 신자들 기도-김낙균 독서-① 박순성 ② 신이근
- 지난주 봉헌금 : 155,845원 교무금 : 43,000원

(노충동)

전화 ⑦7032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나승윤
사도 회장 박춘근

1. 제 7차 성령세미나 개최 : 14일<월>~19일<토>까지
2. 노송 성령봉사회 발족 : 여러분의 진정한 희생과 봉사는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3. 남·여 청년 피정 : 7월 17일<목> 오전 9시 30분~오후 9시까지 귀중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합시다 (참수 : 선착순 50명)
4. 금주의 성경읽기 : 베드로전·후서, 요한 1·2·3서, 유다서
5. 성령기도회 : 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6. 중·고등학생의 성서교육 : 매주<목> 오후 5시~6시
7. 성서 강의 : 매주<월·화> 저녁 8시부터
8. 레지오 마리아와 성서기도 : 매주<목> 오후 8시부터

(숲정이)

전화 ⑦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사도회 임원, 구역장, 반장님 참석 바랍니다
2. 요안회 월례회 : 사도회 후(회의수석 맥)
3. 예비자교리 : 공식미사 후
4. 성령기도회 : 매주<금> 오후 7시30분
5. 신축기금 내주시신 분 : 중앙성당 신일액중 고인석(5만원), 이종철(3만원), 파티마 신일액중(11만원), 덕진본당신일액중 엄기섭(1만원), 진북동 안병철(10만원), 송정숙(2만원)
- 지난주 봉헌금 : 161,58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조정오
사도 회장 양상열

1. 본당신부님 영명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평일미사 변경 : 7일~9일 평일미사 없음 신부님 성서사목 세미나 관계로
3. 화단 제작작업 : 미사후, 모두 참여합니다
4. 주일학교에 어머니들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 보내주세요, 토요일 오후 3시-교리, 4시-미사
5. 본당 청년 중·고·대학생 포함 하기수련회 참가 희망자는 반석회로 연락 바랍니다
6. 중·고생들은 학생미사에 참석합니다 : 주일 3시
7. 숲정이 신축기금 빠른 시일내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234,57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병욱
보좌 신부 김기수
사도 회장 유석중

1. 사도회 : 공식미사 후
2. 유아세례 : 9시미사 후
3. 사제·수녀 성서세미나 : 7월 7일~9일까지 7일 저녁미사부터 9일 아침미사까지 없습니다
4. 사무실과 성당 문 페인트칠 해주신 : 김영환(아오스)씨께 감사드립니다
5. 성구장 담장보수 해주신 아가페회원 여러분께 감사
- 지난주 봉헌금 : 382,510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범영배
사도 회장 조성호

1. 성우회 월례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최용구, 서용현 형제)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현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밤 미사후 사도회 임원 전원 참석바랍니다
2. 축! 영세 40명 축하합니다 : (지난주)
3. 꾸리아 : 다음주
- 지난주 봉헌금 : 115,575원 어린이헌금 : 1,185원 교무금 : 203,000원